

합리적인 자동화 시설로 부화장 생산성 높인다.

— 전남영암 부성부화장 —

전남 영암에서 오리를 위탁사육하여 전라도 지역에 오리를 유통해온 부성오리유통(대표 이덕행)이 지난 3월 20일 부화장 준공식을 갖고 새끼오리 생산에 들어갔다.

육용오리를 위탁사육하여 전라도 지역에 생체오리를 유통시켜온 부성오리유통은 이로서 새끼생산에서 사육,유통까지 완전 계열화 시스템을 갖추므로써 경쟁력 있는 구조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6개월만에 준공된 부성부화장은 종오리 사육장 1천7백평, 부화장시설 170평등 약 2천평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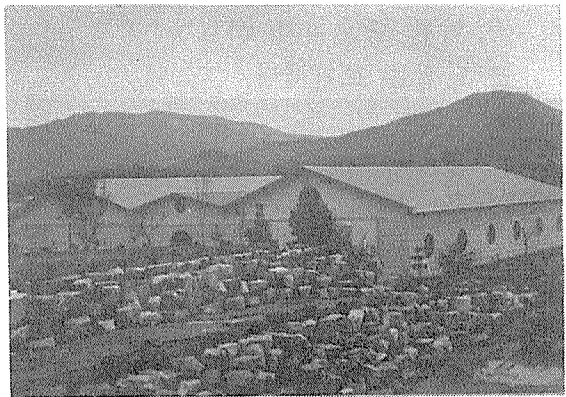
현재 사육되고 있는 종오리는 6천9백수로 월평균 6-7만수의 새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축된 부성부화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부화장과 종오리 사육장 모두 시설을 대부분 성력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어졌다는 점이다.

우선 부화장의 경우 외부 온도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고 내부시설은 중앙에 종란보

관시설과 종란세척등 작업이 이뤄지고 부화장 양편으로 부화기가 설치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같은 구조에 대해 이사장은 「부화장 중앙에서 종란보관이나 종란세척 및 소독등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작업이 완료된 종란은 부화기로 바로 옮겨져 작업이 이뤄지므로서 작업이 간편하고 부화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성부화장의 종오리 사육장 시설은 1동이 60평으로 종오리 3백수씩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양편으로 12동씩 총 24개 동으로 지어졌다.

축사내부벽은 온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레탄을 썩 시공됐고 옆면에는 원치거튼으로 설계됐다.

축사내부 사료급이 시설은 자동급이 시스템을 채택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자동급이기 윗부분에 일정량의 사료가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제한급이가 가능하다.

또 밑부분의 급이통은 급이구를 크게 특수주문제작하여 종오리가 사료를 먹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한 번 사료급이에 모든 종오리가 일시에 먹을 수 있도록 급이기의량을 조절하여 설치됐다.

이로써 종오리 사료를 자동급이하면서도 제한 급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동급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한 종오리가 사료를 적게 먹는 단점을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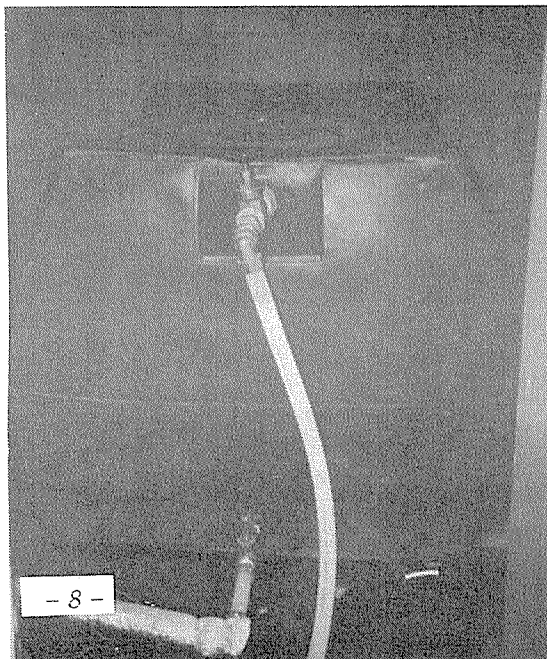
또 일반적으로 부화장에서 제한급이를 위해 축사바닥에다 사료를 뿌려주므로서 종오리가 질병위험에 노출되고 새끼의 위생문제가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위생적인 새끼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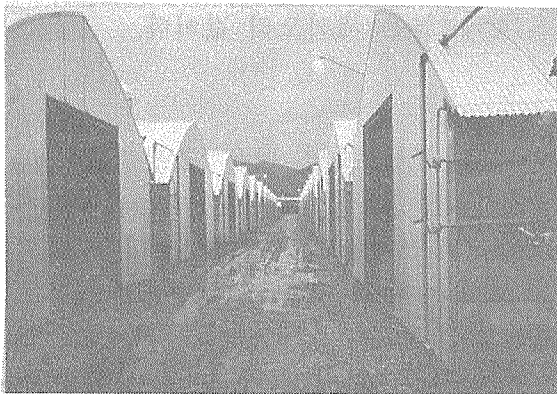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축사한편에는 약품을 음수투여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시스템은 전축사에 걸쳐 음수배관과 약품배관이 축사내부로 따로 연결된후 축사내부에는 음수조절밸브와 약품조절 밸브가 별도로 달려 문제가 있는 축사에만 약품을 투약하도록 되어있다.

음수급이조는 현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구조를 채택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급수기내부가 이중으로 설계되어 급수통 바로 밑에 음수중 배출되는 깨끗한 물은 급수조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별도의 배관을 달아 축사



내부로 바로 배출되도록 설계됐다. 이로서 급수조 바닥으로는 종오리 몸에 묻어 배출되는 오염된 물만 배출되어 한곳에 모여 정화토록하므로써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사내부의 점등시설은 자동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콘추럴 된다.

부성부화장측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일정량의 전등만 켜주고 산란을 하는 시간대인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별도로 부착된 전등이 더 켜져 축사 내부가 더 밝도록 점등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란율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부성부화장은 이같은 종오리장 시설에 총 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밝혀 평당 시공비가 만원에 달해 일반시설에 비해 비싼편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공비는 종오리장 생산성을 감안할 때 결코 비싼 시공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종오리 약7천수를 관리하는

데 한사람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부화장역시 한사람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부성부화장은 종란수거시 새벽3시부터 6시까지 일일 2명의 농촌유휴노동력을 개인당 1만원씩주면 수거할 수 있고 부화장일 역시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李사장은 「가격이 저렴하게 수입되는 수입산 오리고기와 경쟁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에 의한 육용오리 생산비를 낮추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부화장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새끼생산비를 낮추고 저렴한 육용오리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향후 농장 운영 방침을 피력했다.

부성부화장의 이같은 노력이 국내 오리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발 다가서기를 기대해 본다.

